

유해화학물질 취급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과정

A Qualitative Study for Foreign Workers Exposed Hazard Chemical Materials in Korean Industry

김현리¹⁾ · 김정희²⁾ · 송연이³⁾ · 이꽃메⁴⁾ · 정혜선⁵⁾ · 현혜진⁶⁾ · 김희걸⁷⁾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80년대 중반부터 주로 3D업종의 산업현장에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력은 1991년 정부가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연수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여, 2004년에는 경제활동인구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8%로 10년 전인 1994년의 0.4%에 비해 4배 이상 높아져서 이들은 이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유동수, 2004).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기술연수생과 미등록근로자 모두 생산직 인력 부족률이 매우 높은 섬유·의복·신발제조업에 46.8%, 31.6% 등 가장 많이 취업하고, 조립금속·기계장비 제조업(28.0%, 21.3%)과 화학물·화학·고무·플라스틱 제조업(11.6%, 12.7%) 등에 취업하고 있다(노동부, 1995). 이들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재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한국인 근로자보다 훨씬 많아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발생은 2002년 9월 1,41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3a; 이연심, 1996; 이윤심, 2000; 하은희

등, 2002).

지난 2005년 경기도 화성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노말핵산중독 사건(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3b, 2005)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직업병 및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직업병 및 산업재해에 대한 대처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그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기존 산업안전 및 보건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 것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내에서의 생활 및 주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식생활 또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경우에 따라 한국 내에서의 취업상황에 심리적 갈등을 느끼며 심리적, 정신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문화적 적응상의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김원숙, 1999; 이명희 등, 1997). 또한 계약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고, 작업장 내 노동자 수가 많고 의사소통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어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홍윤철과 하은희, 1996) 개인의 건강문제와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의 생산성 향상에도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일부 지역이기는 하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망양상은 질병사, 산재, 불명사 전

1)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3) 문경대학 간호학과 교수
4)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5)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6)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7) 경원대학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hgkim@kwc.ac.kr)

체의 53%를 차지하고 있고(홍승권 등, 1999),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에서도 유기용제(14.4%)나 유해화학물질 취급(10%)이 약 25%로 확인되어(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3a, 2003b) 작업환경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응양상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사업장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우리나라의 범 산업인력의 건강관리 차원에서의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내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적응과정은 근로자 자신들만이 책임이 아니라 산업체와 국가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의사소통, 건강상태, 위험사건 경험 등은 근로환경이 주가 되지만 생활전반에 포함된 경험이며(이연심, 1996), 이는 근로자들이 처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르게 지각될 수도 있고 개인마다 다양하고 독특한 양상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생각과 경험, 대처과정에 대한 이해가 외국인 근로자의 삶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근거이론에 기초하여 한국에서의 삶과 유해화학물질에의 노출정도, 이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환경에의 적응과정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한국 내에서의 성공적인 적응과정 및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근거이론은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로, 현상의 의미, 과정에 초점을 두고 상징적 상호작용에 근거를 두고 개인이 실재를 어떻게 정의하고 상호작용 하는가의 본질을 파악하여 개념화하고 행위를 이해하고 예측하게 한다(Blumer, 1969). 따라서 이러한 근거이론은 행동의 패턴(유형)을 제시하는 강점을 가지고 특히 복잡하고 숨겨진 과정을 확인하고 분석하는데 적합하므로(신경림과 김미영, 2003) 본 연구주제에 접근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환경에의 적응과정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에서의 삶과 유해화학물질에의 노출정도, 이에 대한 대처들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내에서의 성공적인 적응과정을 건강 측면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적인 유용한 간호 지식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환경과 한국에서의 삶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 지에 관해 분석하기 위해 근거이론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근거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과정에서 사회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험적 세계에서 시작되고 요인이나 요인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근거이론의 토대를 이루는 개념의 골격을 근거자료에서 도출하고, 하나의 단위에 대한 기술보다는 실제에서의 과정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러한 근거이론은 복잡하고 숨겨진 과정을 확인하고 분석하는데 적합하며, 실체를 잘 표현 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결과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며 실무를 안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이라는 환경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가운데 경험해 나가는 적응의 과정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새로운 사회문화 환경에서 겪게 되는 삶의 일부분이며 독특한 과정과 맥락 속에서 이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적응과정이 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삶으로 연결되어 감으로 대상자의 적응과정 실증자료들로부터 개념을 형성하고 개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맥락적 이해의 과정을 통해 실제적 이론을 개발하는데 도달하게 된다.

2. 자료수집

1) 연구 참여자의 선정과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대상자는 외국인 근로자로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에서 수행하는 진

료활동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관의 진료 시에 내원한 경우 면접에 동의한 92명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적, 근로환경의 다양성, 체류 조건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인권보호차원에서 연구자들의 신원을 먼저 밝히고 면접에 허락을 얻은 후에 면접은 근로자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노트와 녹음을 병행하였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트만을 하여 면담이 끝난 후 녹취된 내용을 문자화하고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면접 자료를 연구 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며 비밀이 보장됨을 알렸다.

2)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5년 9월부터 11월 초까지 본 연구진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조사내용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이 질적 인터뷰를 시행하기에 앞서 질적 연구방법론과 면접조사방법에 대해 통일된 교육을 함께 받은 후 조사를 시행하였다. 1차 면담의 진행은 설문지를 중심으로 근무실태 전반에 관한 자료 수집을 1차로 실시하고,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허락한 경우에 준비된 질문군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심층면담의 자료는 면담질문을 준비하고 면담의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하도록 하였고 면담의 지침과 질문목록을 결정하고 사전수행과정을 거친 후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표 1).

〈표 1〉 면담 질문군 목록

-
-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되었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 “한국에서 몸이 아플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 “일하시는 곳의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있으면 회사에서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면담 장소는 각 지역의 의사협회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기관에서 주관하는 봉사일정에 맞추어 남양주, 안산, 수원, 포천, 인천, 구로, 진천, 대전 등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만나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거

나 영어나 중국어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통역자의 도움으로 연구자와 함께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표본추출은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가능한 범주의 포화가 이루어 질 때까지 진행하였고, 이론적 표본추출을 위해 실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중 한국 내 체류 기간과 형태가 다양하게 분포되도록 가능한 많은 대상자를 확보하였다.

표본의 면담자료는 오기와 누락의 방지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녹음자료와 노트를 대조하여 필사하여 자료화 하였고,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연구백서나 자료집을 참조하였다. 이 자료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련 자료,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에서의 삶과 인권보호 차원의 사례 등으로 분석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연구자와 대상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3) 자료 분석

질적연구 방법에서 한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점과 약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 다수를 대상으로 가능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기록과 관찰을 통해 이해와 설명의 수준과 내용의 폭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의 접근법에서 약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심층면접 대상자의 수를 기존 질적연구에서 보다 증가시켰다.

각 면담의 자료를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에서 적용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거쳐 의미있는 진술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원자료를 1차적으로 정리하였다. 원자료와 1차 정리된 면담자료를 연구원들의 공동 회의를 통해 의미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category화 하는 코딩의 과정 또한 공동으로 진행하여 자료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간주관적 입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녹취되어 정리된 진술 자료들을 행간 분석을 통하여 일반적인 개념들이 모두 추출된 후 비슷한 현상에 속하는 개념들끼리 묶어 범주화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경험한 유해작업 환경관련 자료를 과정적 시각으로 정리하여 도식화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0)의 분석절차에 따랐으며 코딩과정동안 계속적으로 자료를 비교분석하였다.

〈표 2〉 외국인 근로자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국적	나이	성별	체제기간	불법 여부	사업체 종류	건강문제 유무
방글라데시 중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	22-47세	남: 86명 여: 6명 계: 92명	13년-3개월	불법: 60명 합법: 32명	제조업 인쇄업 인테리어	있다: 48명 없다: 4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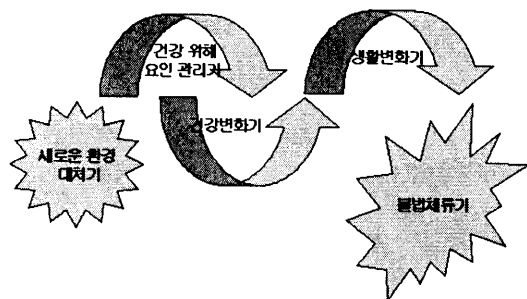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92명이 면담에 참여하였고, 면담시간은 30분~2시간 정도이었다. 체류기간이 길수록 불법체류 상태였고,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3년 이내의 체류기간이 계획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작업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

2. 적응과정

면접자료는 1차적으로 의미있는 자료를 선별하고 53개의 개념을 도출하였고 총 9개의 범주로 구성되고 최종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들은 총 5개의 과정으로 적응과정이 분류되었다(그림 1).



〈그림 1〉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취업의 성공적 적응과정

한국에 외국인으로서 처음 입국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면하고 겪게 되는 “새로운 환경 대처기”로 시작하여 기존질병을 가고 있거나, 작업장에서의 부적절한 작업

환경, 유해화학물질들과 같은 건강위해요인에 노출되고, 사업장 고용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 일반적 건강관리나 유해물질 관리 상태와 근로자의 자가 건강관리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건강위해요인 관리기”를 거쳐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를 경험유무와 업무 스트레스를 인식에 따라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본국에서 보다 더 좋아지거나 건강상태의 수준저하가 나타나고 이는 개개인마다 다른 과정이 진행되는데 “건강변화기”로 명명할 수 있다. 그 후 건강변화가 적정건강수준을 벗어나는 과정에 고용주로부터의 보상에 차이가 있을 경우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내 취업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꾸준히 급여수준이 높은 직장을 찾고 기회만 있으면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로 건강상태가 변화하여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지속할 수 없거나 힘에 부쳐서 일을 계속 할 수 없어 이직을 하거나, 기존의 사업장에서 더욱 애착을 가지고 구성원들과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생활변화기”를 거친다.

점차 한국 내 일상생활, 작업장 환경, 업무에 만족하게 되면서 한국 내에서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기간에도 한국정부의 단속에 포착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한국생활을 하게 되는 “불법체류기”에 도달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기간 요청에 의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 불법체류를 유발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었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원하는 기간 동안 체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응과정은 사업주의 의무이행과 근로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 긍정적 적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불법체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환경 대처기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해서 본국에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고, 한국에서의 취업을 위해 대학재학 중에도 한국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준비를 하는 대학 졸업자와 기본교육을 받은 학력자까지 다양하였고, 한국에서의 음식, 기후, 풍토, 문화에 접하게 되면서 같은 민족, 동료의 도움이나 고용주 측의 배려로 한국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하였다.

“처음 와서 어려웠던 일은 언어이다. 처음 1-2년이 가장 어려웠다. 주요하게 언어 상의 문제이다. 대학 때 한국말을 배웠다. 꼬끔씩 일부러 배웠다”(3번 사례)

이와 같이 의사소통의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고 미리 한국어에 대한 학습도 하는 한국취업을 준비하는 양상도 보였다. 그러나 준비없이 단순히 주위의 권유로 관광비자로 입국하고 한국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더욱 새로운 환경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한국에 처음 올 때 관광비자로 와서 전혀 준비가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정식으로 외국인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내가 알아서 일을 하지요”

그러나 외국인 동료 중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돈을 갈취하거나 지배하려는 관계에서는 매우 어려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작업장 환경에 노출에 까지 모두 적용되었고, 대부분은 당연히 극복해야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건강위해요인 관리기

작업장 배치 시에 적성여부를 확인하고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거나 본국에서 이미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주로 열악한 환경의 소규모 사업장에 불법취업이 되고 건강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드물어 근로자가 기존의 건강문제와 위해환경의 노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사실상 적법한 과정을 통한 취업은 건강위해요인의 노출을 조절 할 수 있는 근로자 자신의 건강상태나 사업장의 위해요인 관리능력이 적정하여 노출을 예

방할 수 있는 관리능력으로 건강위해요인의 존재 자체가 건강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과정으로의 진행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뛰면은 숨이 찼어요, 그런 증상이 한 서른살 넘어서 있었어요. 지금은 인제 숨쉬는 게 불편하죠. 통 만들때 냄새나서..... 일하면서 심하게 되고..... 그냥 일해요”

이 경우는 플라스틱 통을 제작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이미 천식을 앓고 있었으나 유해가스가 배출되는 곳에 취업하여 3번을 이직했어도 같은 종류의 공장에 취업하여 건강위해요인의 노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건강수준이 매우 악화된 사례로 귀국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이라는 건강위해요인 접촉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러한 물질존재에 대한 인식수준에 따라 자가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어느 정도 작업에 익숙해질 수 있는 단계로 진행된다.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과정에 위해요인을 관리하는 기본 절차는 정기적, 특수 건강검진의 실시와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부터 시작되고 작업장 환경의 위생상태를 유지하고, 사용물질에 대한 고용주나 근로자의 적정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장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그러나 검진이 때로 형식적이고 불법적으로 실시되어 건강검진의 실제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수생인데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마스크, 장갑, 장화같은 보호구는 쓴다, 아세트, 염산, 질산을 사용한다”

“새로운 현장에 갈 때 마다 신체검진은 한다. 현장에서 팀장이 부담하여 검진을 한다. 일년에 한 번씩 한다. 검사결과는 모른다. 현장에서 알고 있다. 다른 검사결과는 보았으나 피검사나 엑스레이는 금방 나오지 않으니 잘 모른다. 연수생으로 왔을 때는 정규적으로 하지만 불법일 때는 다르다”

“회사에서 뭔지 사용한 다고 했는데, 이름을 못 외우겠다(화학물질을 말함)... 손가락을 보여주며, 손가락이 새까맣게 변색되었음... 씻어도 안 지고하니, 그냥 다니

지요 뭐... 장갑은 껴도 방수가 안되니까 다 젖고.. 그래서 그냥 하지요... 특별히 조심하라거나 교육받은 적도 없어요... 모두들 나랑 같지요..."

이와 같이 기본적 사업장 건강관리수행의 수준이 외국인근로자의 적응과정에서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작업장 유해물질관리는 작업 시 사용하는 물질에 따른 고용주의 관리책임의 이행이 잘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었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주의 유해물질 관리 책임의 이행수준이 미흡한 경우 근로자들이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체계적으로 취급하는 유해물질 관리방법과 수칙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 확인되었는데, 주로 영어, 중국어 정도로만 번역된 자료가 대부분으로 다른 외국어로 된 설명서나 사업장에 다양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력이 미비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시행되기가 어려워 유해환경에 대한 적정 대처수준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작업장 환경의 정기적 관리를 체감하는 근로자가 소수에 불과하였고 유해물질 보호구의 착용에서도 보호구 지급과 연관되어 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적정교육, 보호구 지급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것 또한 근로자 개개인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건강변화기

건강유해요인에 노출 된 후에는 건강상태의 변화가 오고 이를 자각하거나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후에 건강관리가 자신의 부담으로 남거나 회사 측에서 지원을 협조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능한 치료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건강문제 해결을 미루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건강문제를 조기에 관리하지 않아 심각해 질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 가능한 기관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어깨가 아프다. 그러나 아직 병원을 찾지 않았다. 참을 수 있으면 참는다. 병원에는 안 간다"

"최근에 얼굴에 뿤이 많이 나고, 허벅지안쪽에 긁어서 병원에서 췌고 수술했어요.. 돈이 너무 들어서... 그 이후에도 자꾸 생겨서 지금은 내가 짜내곤 하는데..."

왜 이래요.. 병원에서도 잘 모르겠데요"

"회사는 합법을 쓰기 곤란하다. 의료보험 해줘야지, 기간연장 해줘야지, 그래서 불법들 쓰고, 그러니까 합법은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고, 들어가도 보험은 안 들어 준다. 일하다가 다치면 회사에서 돈 내어 주지만, 감기 같은 개인 병에 걸리면 일반으로 각자 개인이 병원비를 부담한다"

또한 한국의 산업현장이 갖는 열악함은 불법 체류자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책임을 갖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례를 양산하게 된다. 물론 한국인 근로자들도 통상증상 질환 관리는 본인 부담액과 건강보험료에서 지출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전액이 본인부담액이라는 점이 건강관리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유해요인에의 노출과 일반 업무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문제의 조기검진, 적절한 치료가 어렵게 되는 근본적인 외국인 근로자 취업체계의 현실이고 불법취업을 어느 정도는 방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본다.

4) 생활변화기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상태의 변화가 오고 합법적으로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것은 장기간 체류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과정인데 점차 근로환경이나 처우가 나빠지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장을 찾게 되고 잘 적응해 나가는 경우는 장기간 한 직장 혹은 유사직종에 종사하면서 합법적 체류기간과는 다른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받을 돈이 6~7백 좀 넘거든요. 못 받은 돈이 네... 그래서 소송까지 했어요... 근데 뭐... 본인이 종적을 감췄는데 내가 찾을 수도 없지... 속 탈 때도 많아요. 일 췌빠지게 하고... 일이 끝나야 돈을 받아서 인제 받아서 줘야 되는데 안주고 그냥..., 불법이라서..."

"맘 놓고 한국에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 니... 뭐 필요하지요... 뭐... 필요할 때 있지요. 근데 그렇게 뭐 여기저기 옮겨 다니니까 뭐... 그렇죠"

"사장님은 무조건 빨리 빨리 하라고 소리 지르고..."

조금 잘못하면 마구 야단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돈도 제대로 안주면서.... ”

“일을 바꾼다면 일이 힘들어도 돈 많이 주는 곳에 가서 일하고 싶다. 3년 동안 돈 벌어서 아파트 사고 많이 벌어야 하는데 평균 80만원 받는데 일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으니까 일 힘들어도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또한 한국에 취업한 이유가 자국 내에서의 삶의 안정이므로 보수가 많은 곳으로 이직을 늘 갈망하고 있으며 보상이 상대적으로 좋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어떤 조건도 이직 조건이 될 수 없어 유해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관리는 이차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5) 불법체류기

면담이 이루어진 대상자 중에 장기간 체류자는 불법 체류자이며 한국 내에서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잘 적응한 경우이고, 한국에서의 취업과 생활에 만족하고 업무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공장에서는 잘해줘요. 내보낼까봐. 불안하다. 본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하면서 불편한 건 없다. 잘해주시니까 그런 건 없다”

“월급도 두배 주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사장이 힘들다. 한국 사람들이 염색 이런 거 안 배울라 그래요. 사람들 많이 안 좋아한다. 빙초산 그런 거... 나는 일만 해주면 되고,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것만 하면 되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업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작업장 내의 신분이 상승되고 관리업무가 주어지게 되거나 작업환경이 낫설음으로 인해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대략적으로 한국에 취업한 경제적 소득 보장으로 인해 전반적인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었고, 현재 작업장의 환경이나 여건 등이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비록 열악하더라도 본국의 상황보다는 좋은 조건이므로 가능한 한 한국에 체류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경제활동을 지속하길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기 보다는 본국에서의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체류를 희망하고 있었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은 5단계의 적응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바, 이는 취급물질의 유해 정도, 체류기간, 입국목적, 입국 준비, 이전 건강상태, 주위의 지지 수준, 고용주의 사업장 건강관리 의무이행 수준, 근로자 자신의 건강관리 수준과 같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이었다.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과정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의 준비나 한국 내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한국 내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기간으로 외국인 근로자들 간의 폭력, 지지 상태가 새로운 한국생활 대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후 근로자들은 건강위해요인에 노출되는데, 기존 건강상태에 따라 유해환경의 영향 정도가 다르고 근로자 자신의 유해물질에 대한 인식수준에 따라서, 사업장의 고용주나 관리자의 체계적 교육,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무경험이 매우 다르게 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건강위해요인 관리기에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못해 건강에 변화를 초래하고 단순한 증상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보고된(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2000, 2003; 주선미, 1998) 경우와 일치하고 있어 적절한 산업장 보건관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매우 절실하며 적응의 중요한 한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의료백서에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병 요인 판정과정에 근로현장에서의 무관심과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서 향후 유사한 영세업체에서 직업병 발생의 가능성이 심각함을(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2000) 알리고 있어 본 연구에서 고용주의 사업장 유해물질 관리양상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건강변화에 유해한 물질에의 노출 후 건강상태가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는데, 김정순(2001)의 연구에서도 일반 외국인 근로자들에 있어서 상병경험은 지난 2주간 16.3%이고, 불법체류로 인해 건강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았던 결과와 무관하지 않았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망 양상은 29%가 질병사, 19%가 산재로 가장 높은 원인 순위였고(홍승권 등, 1999), 산업연수생의 경우에도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건강위해요인에 노출 후 관

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본국으로 강제 출국조치 되는 경우도 있었음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각 과정에서 적응과정 상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이후 근로환경의 변화인 이직이나 치료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생활변화기를 거치는데, 미등록 노동자의 경우 평균 3.42회, 1년 이내 1.39회이고 임금 체불로 인한 이직율도 2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설동훈, 1999)되고, 이직의 사유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경험자 중에서 80%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홍윤철과 하은희, 1996), 유해물질 접촉에 의한 경우도 산재유형에서 2위에 해당되는 중요요인(최재욱 등, 1999)이었으나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28.6%로 많았던 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사업장 건강관리의 현주소이고 과정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적응과정의 결과는 한국 내에서의 장기간 취업을 위한 불법체류로의 진행으로 이어지고 있어, 장기간 체류하게 되는 근로자들로 불법적 체류이긴 하나 본인들이 한국에서 경제적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였는데, 유해작업환경에 대처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건강관리가 잘 된 사례들로 성공적인 한국 내에서의 적응이 되었다고 본다. 또한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은 물론 근로현장에서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현장에서의 적응과정은 산업장이라는 업무현장과 새로운 삶의 터전이라는 현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총체적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들의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전반을 이해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건강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의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적응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사업장 보건관리의 간호중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2005년 9월부터 11월 초 까지 총 92명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고 면담내용녹음을 허락한 경우 면담 후 자료를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새로운 환경대처기' '건강위해요인관리기' '건강변화기' '생활변화기' '불법체류기'라는 총 5개의 적응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과정은 근로자 자신의 건강이나 준비상황, 작업환경, 작업장 건강관리수준, 자기건강관리 노력 등의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한국에서의 장기체류 즉 불법체류라는 과정까지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응을 위한 방법론적 접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체계의 재구조화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새로운 환경에의 대처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시작으로 적정 업무에의 배치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수준별, 언어소통이 가능한 실질적 교육으로 사업장 위해환경에서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사업장 고용주의 책임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필요한 사업장 인력의 확충과 인력의 적응을 도모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원숙 (1999).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불안요인 및 불안정도. 한국산업간호학회지, 8(2), 212-220.
- 김정순 (2001).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보건상태 및 사회적 문제의 현황에 대한 연구. 외국인 노동자 보건·복지 현황과 과제; 외국인 노동자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노동부 (1995).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3a).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3b).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관리-노말렉산. 한국산업안전공단.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5). 역학조사보고서 : 전자부품(LCD FRAME) 제조사업장의 노말렉산 취급자에서 발생한 말초신경염. 한국산업안전공단.
-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 신경림, 김미영 공역 (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현문사.
-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2000). 외국인 노동자 의료백서. 청년의사.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2003). 외국인노동자 직업 병 실태조사 보고서.

유동수 (2004).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명희, 박정일, 구정완, 임현우 (1997).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실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산업의학회지, 9(2), 309-319.

이연심 (1996).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연구: 상담사례 내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윤심 (2000).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선미 (1998).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과 의료이용 실태 조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최재욱, 김정아, 김해준, 박종태 (1999). 한국일부지역의 이주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산업재해실태 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11(1), 66-79.

하은희, 이승길, 최재욱, 홍윤철 (2002).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 산업보건, 166권, 4-13.

홍승권, 오상우, 임강은, 최경만, 조비룡, 허봉렬 (1999). 한국 일부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 이용 실태와 상병 사망 양상의 조사. 가정의학회지, 21(8), 1053-1064.

홍윤철, 하은희 (1996).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실태 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8(1), 1-14.

Blumer, H. (1969).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 Abstract -

A Qualitative Study for Foreign Workers Exposed Hazard Chemical Materials in Korean Industry

*Kim, Hyun Li¹⁾ · Kim, Jeong Hee²⁾
Song, Yeon Ee³⁾ · Yi, Ggodme⁴⁾
Jung, Hye Sun⁵⁾ · Hyun, Hye Jin⁶⁾
Kim, Hee Girl⁷⁾*

Purpose: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foreign workers' experiences exposed hazard chemical materials in korean industry. **Method:** The research subjects were 92 foreign workers worked in seoul, namyangju, ansan, suwon, pocheon, incheon, jincheon, and daejeon. It was that grounded theory method as qualitative approach was applied with in-depth interview, recording and dictation, and collected data was analysed line-by-line by research teams. The analysis process of in depth interview data was three phase. **Results:** The first phase was that find out meaningful data and confronted data for meaningful data was 53 meaningful items. The second phase was coding process of meaningful data, total coding items were 9, difficulty of new environment, existence of health hazard factors originated in work, performance of basic health management, management of hazard materials in work-site, self care of hazard materials in work-site, discrimination of disaster-compensation originated in work, perception of work stress, motivation of leaving

1)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 Professor, Cheju National University
3) Professor, Munkyeong College
4) Professor, Sangji University
5) Professor,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6) Professor, Gangwon national university
7) Professor, Kyungwon College

position, satisfaction for present life. The third phase was 5 adaptation process, copying phase for new environment, management phase for health hazard factors, health change phase, life change phase, illegal stay phase. **Conclusion:** In summary, as a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foreign workers was experienced new environment and then has various problems in working site. But these evidences were not different from korean workers basically, undoubtedly reality of a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nd foreign workers with long time stay have had many health problems probably, but they have want to long stay and so reach an unexpected result, illegal long stay. Therefore, we should make efforts for adequate foreign workers' health management at work-site and overall life in governmental and industrial nursing level.

Key words : Foreign worker, Hazard chemical materials